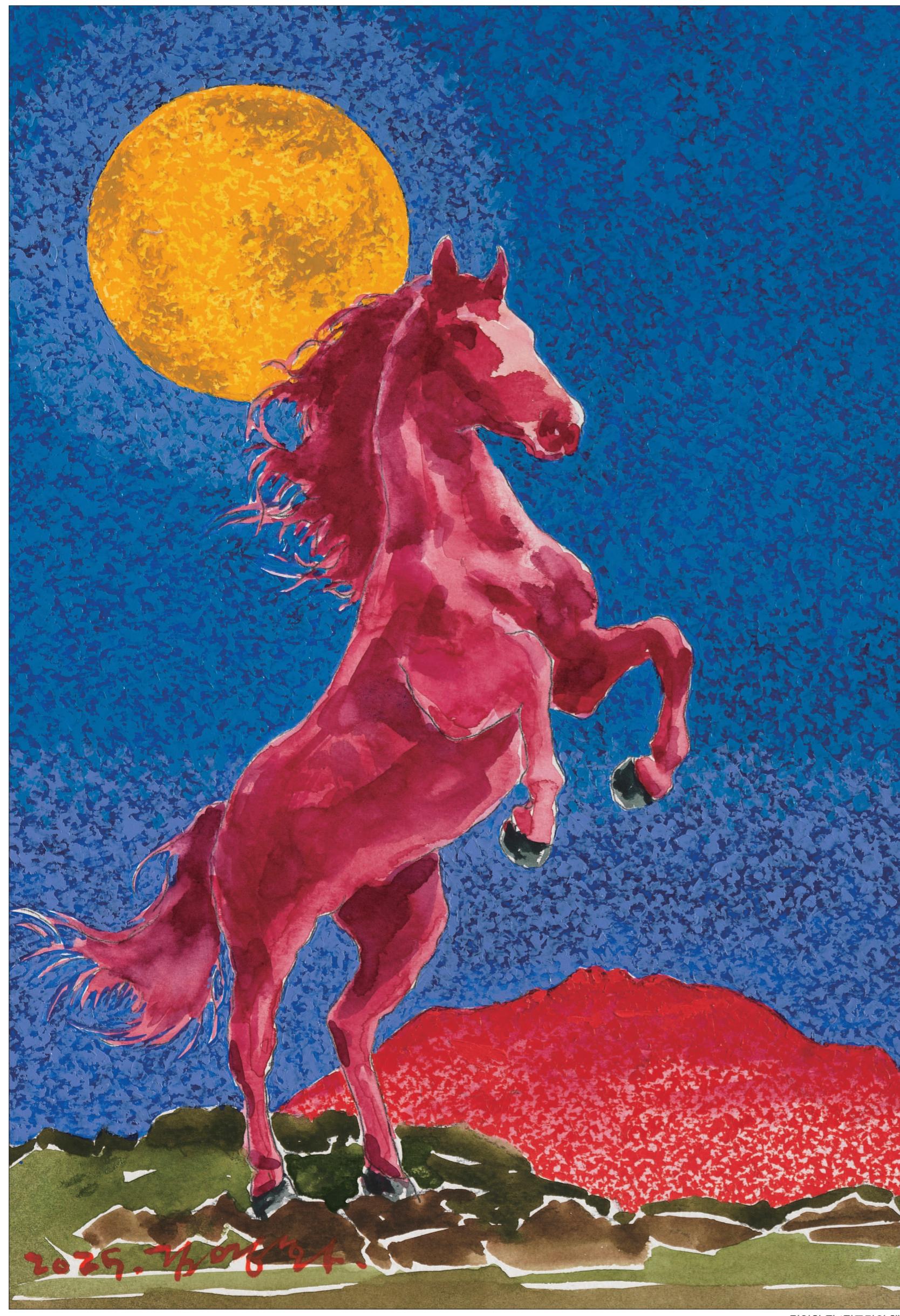


아리고 맵고 순하고 여린 것들 불평없이 안다



김영화 작 '적토마의 해'

시·조성국



△광주 출생 △1990년 '창작과 비평' 봄호로 등단 △2015년 '문학동네' 여름호에 동시 발표하며 작품활동 시작 △시집 '슬그머니'·'동근진동'·'나만 멀뚱에서 미안해'·'귀 기울여 들어 줘서 고맙다'·'애나나' △동시집 '구멍 집'·'들기고 싶은 비밀' △평전 '돌아오지 않는 열사, 청년 이철규'

그림·김영화



△광주 출생 △초대 개인전 32회 △개인전 18회 △한·러 현대미술전 등 국제초대전 17회 △동학속의 우리기족전 및 99국제 섬 미술전 초대 등 각종 130여회 △그룹 단체전 250여회 △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 위원 역임 △현 광주전업미술가협회 회장 △현 평화예술재단 광주·전남 지회장

붉은 말띠해 신문지의 쓸모

조성국

더께 긴 유리창 세정 하듯 닦을 거다
말 많은 구설수 죄다 내려놓고 차곡차곡 접혀 쟁여졌다가
이따금
삼겹살 굽는 거실 바닥에 튀기는 기름기 받아줄 거다
내가 구독한 신문은
얕은 불에 천천히 끓인 밀가루 풀 바른 도배의 작은 방
목은 때와 낙서를 도려낸 초벌 벽지 돼주고 또,
넓게 펼쳐 깔린 채 마늘 양파 널어 말린 베란다
고구마 감자의 몸
시들지 않게 감싸 주고 일테면
아리고 맵고 순하고 여린 것들을 불평 한번 없이 안아줄
거다, 또
그늘에 자리 잡고 앉아
쌀벌레 바구미 슬은 입쌀 숙아내고
떼어낸 마른 멸치 똥이나 알 굽은 마늘 껌질을 죄다 받아
줄 거다
또, 구겨져 뭉쳐서는 빗물 젖은 신발 속의
고린내도 냉큼 잡아주고
밖에 나가 깨지기 쉬운 이삿짐 살림살이 보살펴 돌보듯
잠든 노숙의 얼굴을 가만 덮어줄 거다 그리고는
버려진 듯 찢어져서 마침내 저를 태워 누군가의 언 손
죄어주는 불쏘시개 데준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거다
내가 조간에 구독하는
병오년 붉은 말띠해의 광남일보는